

## 교화와 응보개념을 통한 행형목적 이해에 대한 연구

정 우 석\*

### 국문요약

본 논문은 행형(行刑)이 ‘교화(敎化)와 응보(應報)’라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목적들로 기술되어질 때,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행형목적갈등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보드리야르(J. Baudrillard)의 시뮬라시옹이론 및 하이데거(M. Heidegger)의 존재론적 사유를 활용하였다. 특히,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이론을 통해 행형목적인 교화나 응보 자체가 하나의 시뮬라크르일 수 있고, 그 내면에는 다른 목적도 잠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過程, process) 속에서 하나의 시뮬라크르로서 교정(矯正)의 다양한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활용하여, 갈등관계의 행형목적의 해소를 위한 대안을 찾아보았다. 특히 ‘현실의 장(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통해 행형개념의 갈등요소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 단서(端緒)들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2가지 관점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둘 사이의 중간점을 찾자는 선형적인 질충이 아닌, 지평(dimension)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에 관한 것이다. 그 관점들로서 행형목적에 대한 이중성(二重性, duplicity)의 이해, 동사적 개념으로의 전환, 현실의 한계인식을 언급하였다.

\* 성동구치소 교육교화과 책임관, 한국학대학원 교육학전공 박사과정

## I. 서 론

행형(行刑, penology) 또는 교정(矯正, correction) 개념<sup>2)</sup>은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즉, 학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양한 용어로 설명됨에도 불구하고,<sup>3)</sup> 행형은 교화(敎化)와 응보(應報)라는 양가적인 요소의 집합속에서 정의될 수 있

- 2) 본고에서는 행형과 교정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교화부분을 강조하거나, 공식적으로 교정이라고 명명된 부분에서는 교정(矯正)이라고 기술하고, 일반적으로는 행형(行刑)이라고 기술한다. 허주옥도 行刑이 교정의 형식적·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임에 반해, 矯正은 행형의 실질적·이념적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고 있다. 즉, 行刑의 개념에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이라는 목적 이외에 응보, 일반예방, 고통의 부과 또는 격리에 의한 특별예방등 다른 목적까지 포괄할 수 있는데, 행형을 矯正이라고 부를 때에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다른 목적보다 중요시하거나 이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현대의 교정이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 때문에 行刑은 교정의 기초를 조성하는 법적 개념으로, 矯正은 행형의 목적 개념으로 상호 엄격히 구분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행형과 교정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라고 보았다. (허주옥, 『신판 교정학』 (법문사, 2002), 3~5쪽.)
- 3) 양자는 행형법 제1조가 규정한 '사회복귀', 그리고 '격리'에 각각 상응하는 개념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재사회와 격리보안을 모두 구금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다. (이호중,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행형과 수용자의 인권」,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353-354쪽 참조; 이윤호는 교정의 목적으로 처벌을 위한 교정, 교화개선을 위한 교정, 사법정의를 위한 교정의 3가지를 들고 있다.(이윤호, 『교정학개론』 (박영사, 2002), 21~43쪽); 이재상은 형벌의 목적으로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로 보고 있다.(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46~57쪽.); 정영석·신양균은 형벌의 목적을 응보, 목적형, 교육형의 3가지 경우로 보았다(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1996), 495~496쪽); 양화식은 형벌의 정당한 근거로 응보형이론과 예방이론을 들고 있다.(양화식, 「향형 및 행형에서의 형벌목적」, 『형사정책』 (제11호, 1999), 158쪽.) 김용준·이순길도 교정의 목적에 대해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로 보고 있다(김용준·이순길, 『교정학』) Orlan과 Robertson은 행형의 목적을 4가지(deterrence, restraint, resocialization or rehabilitation, retribution)로 기술하고 있지만, 크게는 응보(punishment)와 재사회화(resocialization or rehabilitation)로 볼 수 있다. (Orlan Lee, & T. A. Robertson(1973), *'Moral Order' and The Criminal Law*, Martinus Nijhoff Press, p. 117-118.) Howard도 교정의 목적으로 복수(revenge), 제지(restraint), 개선 또는 재사회화(reform or rehabilitation)를 언급하고 있다.(Howard C. Daudistel(1979), *Criminal justice: situations and decisions*, Holt, New York: Rinehart and Winstons, pp. 306-307.) 행형의 본질이나 목적은 곧 형(刑)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형벌의 본질을 응보론적으로 보면, 행형의 목적도 응보론으로 설명될 것이고, 형벌이 교화에 목적이 있다면 행형도 교화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형법이나 형사정책분야에서는 형벌의 목적이 주로 기술되는 반면에, 교정학에서는 교정의 목적이 기술되는데, 이 양자는 상호 연계되는 개념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교화와 응보는 서로 일치하기 어려운 개념들 이라는 것이다. 즉, 현실의 행형에서 추구해야 할 것을 그 '목적(目的)'에 좁혀서 파악해 본다면, 우선 해명되어야 할 것은 교화와 응보의 관계이다.<sup>4)</sup> 문제는 교화와 응보로 구성된 행형목적이 조화롭게 구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치루어야 하는 징벌성 격의 '응보'와 수형자를 교육·개선시키는 '교화'는 극단적으로 보자면 일치될 수 없는 이원적(二元的)인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의 틀 속에서 한쪽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행형은 결코 온전히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당연히 행형목적이 양 극단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교정이란 교화와 응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면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른 상황(또는 사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극단의 중간점을 찾아서 상황상황 행형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행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한 방안으로는 '보드리야르'의 시물라시옹 이론이나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를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존재론적 사유 속에서 하이데거는 존재를 이해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하이데거는 '존재'(存在, Sein) 고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의 방해물이 제거된 지평(dimension)의 범위 내에서 근본적으로 탐구하면서 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존재론이 묻거나 발견하거나 쓸모가 없어지거나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해답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를 적용해 본다면, 행형론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형의 고유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행형의 개념을 거슬러(逆) 추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교정시설이 생기게 된 이유 등을 살펴봄으로써, 행형이 교화와 응보라는 2원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차원이 다른 모색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행형이 교화와 응보라는 상이한 요소들로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새롭게 보고 해결할지에 대해서 보드리야르(J. Baudrillard)의 시물라시옹이론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보드리야르는 이 세계가 점점 현실

4) 이호중,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행형과 수용자의 인권」,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353-354쪽 참조. 헌법재판소의 표현대로 하면, 교화·갱생과 격리보안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에 근거하기 보다는 이미지나 모방의 재현된 세계, 곧 시물라시옹화된 세계로 변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이렇게 다양한 시물라크르(모방, 변조, 또는 재현)들의 활동인 시물라시옹을 통해 현재의 사실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시물라시옹이론을 통해 본다면, 행형이라는 개념이 응보에서 교화로 변하는 것도, 어떤 질적(質的)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시물라크르가 또 다른 시물라크르로 전이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역사적으로 행형이 응보관에서 시작하여 교육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착각일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이미지들의 ‘근본(根本) 이미지’로서의 행형이 단순히 응보로써 시작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응보와 교화의 양극단을 취한다는, 즉 실패를 자초하고 설정된 이 개념 자체가 행형의 원본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형이란 무엇이며 왜 생겨난 것인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실패를 자초한 교정시설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교정시설의 본모습에 대한 일부분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감옥이 생기게 된 원인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는 과정을 통해 행형의 원본이미지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행형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 것이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관점으로 현실의 행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행형이란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거나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다. 현실에서 바로 행형이라는 현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원적인 대립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행형목적이 현실에 적용될 때에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의 행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즉, 행형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 앙리 베르그송(H. Bergson, 1859-1941)은 인간의 지성이란 여러 현상의 모순 속에서 그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즉 지성의 모순 속에서, 지성은 비로소 지성 밖에서 지성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성은 기존의 단일성·다수성·기계적 인과성의 지성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 지성이 되어서 사유의 풍부함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5)</sup> 이 말은 행형의 양가적인

5) 앙리 베르그송, 황수영 옮김, 『창조적 진화』(아카넷, 2005), 11쪽. “우리의 사유는 순수하게 논리적인 아래에서는 생명의 참된 본성과 진화운동의 심층적 의미를 표상할 수

모습이, 오히려 교정이란 분야를 다시금 고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행형이란 용어를 같은 차원의 ‘응보와 교화’사이의 어느 중간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차원(dimension)이 다르게 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서 오히려 교정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차원을 달리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 방편으로 보드리야르와 하이데거의 사유를 차용하여 알아보고, 또한 이를 통해 ‘행형 또는 교정’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이 소논문의 주제이기도 하다.

## II. 시물라시옹과 행형의 본질

### 1. 보드리야르의 시물라시옹이론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컴퓨터·미디어·정보 등으로 요약되는 현대사회의 문화현상은 인간의 존재양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의 사회·문화적 변용을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문화와 사회의 관계를 규명하는 이론적 탐구를 늘 모색하고자 하였다.<sup>6)</sup> 보드리야르가 언급하는 시물라크르(simulacre)는 이미지들의 변형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이미지‘들’이란 복수(複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미지로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계속해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이미지와 변형된 이미지가 중첩되어 또 다른 이미지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시물라크르는 재현(representation)이나 모방(mimesis)과는 다르다. 재현(再現)과 모방(模倣)은 실체의 존재를 가정함에 반해, 시물라크르는 실체와 실체를 모사한 이미지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한다. 그것은 원본없는 이미지이며 그 자체가 현실

---

없다. ... 만약 우리의 사변이 어떤 모순에 부딪치고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런지를 철학이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식의 이러한 절대적 가치를 의심하는 생각은 도대체 우리에게 떠오르거나 했을 것인가?”

6) 배영달, 『보드리야르와 시물라시옹』 (살림, 2005), 13-14쪽.

을 대체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뮬라크르의 자전(自轉, Precession)<sup>7)</sup>을 시뮬라시옹(Simulation)이라고 칭한다. 마치 전자문화시대에서의 현실감각이 이미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이미지를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시뮬라크르<sup>8)</sup>인 하이퍼 리얼리티(hyperreality, 또는 파생실재)<sup>9)</sup>단계이다. 보드리야르는 이 개념을 통해 파편화되고 분열되는 현대사회의 문화적 성향을 설명해 내고 있다.

시뮬라시옹에서 하이퍼 현실(또는 파생실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재와의 절대적인 일치의 시도와 동시에 자신과의 절대적 일치에 접근하는데 이것이 파생실재(派生實在)라고 볼 수 있다.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파생실재의 예시로 리메이크된 영화(映畵)를 들고 있다. 리메이크된 영화는 스스로를 표절하고, 스스로를 복사하며, 자신의 고전을 다시 반복하여 원래의 무성영화보다 더욱 완전한 무성영화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리메이크된 완전한 무성영화가 바로 파생실재로,<sup>10)</sup>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게 보

7) 여기에서 언급된 자전(自轉)의 의미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들의 자전(précession des simulacres)」의 제목에서 précession의 의미로 쓴 것이다.

8) 시뮬라크르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3가지 단계를 보드리야르는 공상과학에 비교한다. 첫 번째 단계는 실재(實在)와의 거리가 극대되는 유토피아적이며 낙관적인 상상의 단계로써, 엄밀히 말하면 시뮬라크르의 기반이 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공상과학과 상응하는 시뮬라크르 단계로써, 모방이나 위조가 과도하게 투영되어 실재와의 거리가 뚜렷이 줄어드는 단계이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의 양적 증가단계에 속하고, 아직까지 질적변화에 속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질적인 변화이지만 규정하기 어려운 단계로 굳이 표현하자면, 공상과학이 죽고 다른 무엇이 솟아나고 있는 유동적이고 비한정적이며, 상실된 유토피아 단계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실재와의 거리는 없어지게 된다. 즉, 세 번째 질서의 시뮬라크르가 곧 실재가 되고, 실재는 사라져버리는 단계이다.

9) 마샬 맥루한, 김균·정연교(역), 『맥루한을 읽는다』 (궁리출판, 2006), 130쪽.

10) 장보드리야르, 하태환(역), 『시뮬라시옹』 (민음사, 2005), 95-96쪽. “예를 들면 「최후의 전시회 Last Picture Show」를 들어보자. 나처럼 50년대에 이 영화를 원본으로 보았다고 착각할 만큼 꽤나 주의산만할 경우 이것은 어느 조그만 미국 마을의 풍속과 분위기를 그린 아주 좋은 영화이다. 단지 어떤 가벼운 의심이 있을 뿐이다. 즉, 당시의 다른 영화들보다는 약간은 너무 좋고, 더 잘 정돈되어 있으며, 당시의 영화와는 달리 심리적이고 도덕적이며 감상적인 흔적이 없다. 이 영화가 70년대 영화중의 하나임을 알게 되면 절감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복고이고, 깨끗이 순화되었으며, 매끈한 50년대 영화들의 파생실재적인 복원이다.”

파생실제란 ‘실재와의 절대적인 일치’를 말하는 것으로, 시뮬라시옹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 실재로서 전통적인 실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파생실재는 가장(假裝)이기 때문

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화이미지가 무엇을 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조할 대상의 실재가 없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매혹되어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시물라시옹이론에서는 이미 실재가 사라진 곳에 하이퍼 현실이 존재하며, 이 하이퍼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예는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이 음료라기보다는 젊음이라는 이미지를 상징하기 때문이고, 일반도로에서 속도도 못 낼 스포츠카를 사는 이유는 자동차의 기능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富)의 척도로써 활용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론 음료수나 자동차 같은 소비경제에서만 시물라시옹이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보드리야르는 사회 일반에 걸쳐 이런 시물라시옹이 작동된다고 본다. 그중 디즈니랜드와 워터게이트사건 등을 보드리야르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시물라시옹 과정으로 보고 있다. 디즈니랜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미국 전체가 가상의 이미지로 포장된 사회임에도 디즈니랜드가 그런 역할을 대행함으로 그 사회는 가상사회로 구성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워터게이트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정치의 부정부패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 전체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감추어지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정치적 스캔들이 일어났고 이는 정치의 일부분이 부정부패로 얼룩졌다는 이미지를 남겼고, 결국 사건의 해결을 통해 정치는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감옥에 대해서도 그는 “마치 감옥이 사회 전체가 그 평범한 어디서고 감방이라는 사실<sup>11)</sup>을 감추기 위해 거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시물라시옹에서 과연 원본(原本) 또는 진실(眞實)은 없는 것인가? 혹 있다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시물라시옹』 첫머리에 “시물라크르란 결코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다. 진실

---

에 전통적인 실재가 가지고 있는 사실성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파생 실재는 예전의 실재 이상으로 우리의 곁에 있으며 과거 실재가 담당하였던 역할을 갈취하고 있기에 실재로서, 실재가 아닌 다른 실재로서 취급하여야 한다.(장보드리야르, 하태환(역), 『시물라시옹』 (민음사, 2005), 57쪽. 각주 6번 참조)

11) 푸코 역시 사회 전체가 합법적인 감옥체계를 형성하여 가는 경향이 있다고 여긴다. 단 여기에서 언급되는 감옥은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의 시스템인 감시와 처벌을 통한 인간 복종의 일반적 전술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효,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1989) 396쪽.)

이야말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긴다. 시물라크르는 참된 것이다.”고 적혀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위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워터게이트사건처럼 그 사건에 부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시물라크르로써 참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정치적 부정행위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감추어져서, 정치적으로 다른 일들은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 바로 이러한 깨끗한 정치적 이미지의 시물라크르는 거짓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된 것으로 가정되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깨끗한 정치적 이미지(시물라크르)는 결국 참된 것이 되는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원본이나 근원이 존재하지 않고 바로 시물라크르가 존재하며, 이러한 시물라크르가 참된(眞)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언급된 참된 시물라크르는 표면상 참된 의미일 뿐이며, 그 이면(裏面)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본이나 진실은 무엇인가? 바로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인해 만연한 부정부패가 감추어지는 바로 그것’일 것이다. 결국 보드리야르가 언급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표현된 시물라크르와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시물라시옹이 진실에 대한 모사나 재현이기도 하지만, 그 진실은 드러난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내포적으로 다른(異)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책과 같은 인쇄매체가 겉으로는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인쇄매체에서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상태로 전달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인쇄매체의 형식인 체계성이라는 것이다. 즉 책에 쓰여 있는 글자의 내용이 아니라, 책 자체의 구성인 시스템이라는 것이다.<sup>12)</sup> 즉, 책은 앞에서 뒤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1페이지와 2페이지가 같은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 등의 시스템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을 행형에도 유추해 본다면, 현상적으로 보이는 교화와 응보사이에 갈등하는 행형목적에 다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행형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유 자체가 교정의 사유를 풍부하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2) 배영달, 앞의 책, 45쪽. “책의 출현이 문명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획기적 사건이었다면, 그 영향력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맥루언에 따르면, 그것은 책이 전달하는 내용(이데올로기, 정보, 과학적 지식 등)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책이 자신의 기술적 본질을 통하여 행사하는, 체계화의 근원적 강제력”이다.

## 2. 원본 ‘시물라크르’로서의 행형목적

### 가. 다양한 시물라크르로서의 행형목적들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면 그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댓가의 처벌도 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의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반인들이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게 된다. 이렇듯 하나의 형벌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형벌은 크게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응보형주의(應報刑主義)는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써 가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기에, 이 형벌의 목적은 범죄 대상자에 대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sup>13)</sup> 아울러 행을 집행하는 목적도 범죄를 행한 자에게 그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응보형의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목적형주의(目的刑主義)이다. 목적형주의는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의 수단으로 형벌을 보는 것으로, 이것은 다시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로 구분된다. 일반예방주의는 형벌을 사회에 대한 위하(威嚇)적 작용으로 이해하여 형벌의 목적은 일반인, 즉 잠재적 범죄인의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반면에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관점에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sup>14)</sup> 교육형주의는 이러한 특별예방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형주의는 범죄인도 인간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제 아래 형벌은 범인을 선량한 국민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sup>15)</sup>

13) 강영철, 「형벌·행형의 목적과 단기자유형」,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제13호, 2001), 137-138쪽; 박양빈, 「범죄자처우이론-그 논쟁과 방향-」,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제13호, 2001), 106쪽.

14) 이재상, 『형법총론』(박영사, 2003), 50~57쪽. 일부 요약함.

15) 강영철, 앞의 논문, 159쪽.

물론 행형목적이 응보형이나 목적형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 각자의 장단점으로 인하여 양자의 절충설(折衷說) 또는 결합설(結合說)이 지지받고 있다.<sup>16)</sup> 응보형주의는 형이상학적 산물이 아니고 법질서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이는 형벌의 목적에 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형벌목적에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 있기도 하며, 이에 의하여 형벌의 정당성이 명백히 밝혀지는 것도 아니다.<sup>17)</sup> 목적형주의에서 일반예방주의든지 특별예방주의든지 그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sup>1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교정에서는 이러한 절충설 또는 결합설이 쉽사리 상호 보완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즉 결합되기 어려운 행형목적들간의 관계가 행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서는 난점(難點)으로 다가온다.<sup>19)</sup> 응보란 형벌관이 나타나게 된 것과, 그에 대한 후속책으로 제시된 목적형주의 형벌관, 그리고 양자의 절충으로 이어지는 형벌목적론이 하나의 하이퍼 리얼리티로써의 행형목적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지만, 이는 다시 현실의 구체적인 행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의 사실(fact)에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충설 속에 이미 이러한 괴리가 내제되어 있는데, 어느 관점을 주로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현실의 행형은 재단되기 때문이다.

#### 나. 교화와 응보로써의 행형

행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시뮬라시옹이론을 통해 유추해보면, 행형목적인 교화나 응보 자체가 하나의 시뮬라크르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뮬라시옹과정 속에서는 그 시뮬라시옹의 원본, 보여지지 않았던 근본이미지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행형(또는 교정)을 본다면 좀더 정확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6) 강영철, 위의 논문, 144쪽; 신동운, 『형법총론』(법문사, 2001), 8-9쪽; 이재상, 앞의 책, 57쪽.

17) 이재상, 앞의 책, 49쪽. 일부 요약함.

18) 이재상, 위의 책, 53쪽. 일부 요약함.

19) 뒤의 3장 1절 '현실에서 행형에 대한 초점 불일치' 참조.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행형의 개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행형은 교화와 응보라는 2가지의 시물라크르의 변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물론 행형을 어느 쪽에 더 치우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관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문제는 행형의 목적 및 개념이 ‘응보와 교화’의 2대 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양자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치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도 행형의 목적은 개별적인 수형자에게는 달성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체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완성될 수 없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목적의식의 불분명 내지는 불확실성을 이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그렇다면 행형이란 분야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행형의 목적은 수용자의 감금이나 교정교화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현실의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옥이란 역시 행형의 한 형태인 교정(矯正)과는 거리가 먼 개념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이미지 속에 있는 용어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국가는 감옥이란 제도를 결코 버리지 않았고, 버릴 수도 없을 것이다. 교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용자의 자활·갱생이란 이미지가 사실은 파생실재로써, 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응보나 교화 등의 시물라크르가 아닌, 감추어진 근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교도소는 왜 생겨났는가?” 하는 물음과도 관련된다. 푸코(M. Foucault)는 “내가 설정한 가정에 따르면 감옥은 처음부터 개인을 변화시키려는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감옥은 범죄인을 모아 놓은 하나의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곳이어서 범죄인을 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변화해야만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은 학교나 군대, 병원과 마찬가지로 개인을 정확히 조절하려는 의도

20) 이윤호는 교정당국에서 그 목표가 확실하지 못하여 범죄자를 교화개선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애매한 목표를 설정했기에, 이로 인해서 일선 교정종사자들조차도 어떤 목표를 강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윤호는 필자가 ‘행형’이라고 한 부분에서 모두 ‘교정’이라고 기록했음을 밝힌다.(이윤호, 『교정학개론』 (박영사, 2002), 11쪽.)

를 가지고 만들었던 하나의 권력기구였습니다.”<sup>21)</sup>고 언급한다. 즉 이미 감옥이 수용자의 교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정기는 교정시설의 존재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틀이 있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수정주의적 관점이 가장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감옥의 존재이유가 권력의 통제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은 왜 존재하는가? 모두 나름의 실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를 아울러서 볼 때 세 가지 인식 틀이 있다. 첫째는 진보의 상징으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감옥이 응보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공리주의 목적, 즉 무력화와 억제 그리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계급지배의 도구로써 파악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감옥내의 죄수에 대한 처우는 최하층 독립 노동자의 처우보다 한 단계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무거운 사회적 중압속에서 이들 하층계급의 범죄를 저지르려는 경향을 억제하는 한편, 하층계급의 구성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있게 만드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감옥을 특별한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사회적·정치적 요구의 결과로 파악하는 수정주의적 관점이 있다. 이 관점 안에는 매우 다양한 이론적 흐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감옥이 범죄 예방과 교정이라는 공식 목표에 처음부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벌의 가장 중요한 장치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는 감옥을 단순히 개혁의 산물이나 합리적인 제도로 바라보지 않고, 권력의 전략과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파악한다.<sup>22)</sup>

대부분의 교정학 또는 행형학, 형사정책 등의 관련서에서 형벌의 가장 의미있는 변화로 신체형에서 자유형으로의 변화를 일컫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행형의 목적이 응보형에서 교육형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푸코는 신체형의 소멸을 인간화(humanization)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 안이한 분석이라고 평가하고 형벌의 진화 그 이면에는 권력(power)이라는 실체가 자리잡고 있으며, 신체형이 소멸되고 형벌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신체가 권력 실행의 직접적인 장

21) 콜린 고든 (편), 홍성민(역), 『권력과 지식 - 미셸 푸코와의 대담-』 (나남출판, 1997), 64-65쪽.

22) 최정기, 『감금의 정치』 (책세상, 2006), 39~41쪽 내용요약.

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체에 대한 통제를 통해 행사되던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던 권력(power)은 이제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미세한 권력으로 그 모습을 변모시킨다. 가시적인 권력은 폭력을 수반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저항을 만들어내지만 미세권력은 폭력에 의지 하지 않고 자발적인 순종과 권력에의 순응을 만들어낸다.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통제 메카니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푸코는 이처럼 근대 이후의 지배적인 형벌양식으로 구금형이 대두한 것을 행형론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보다 넓은 전체사회의 인간 개개인에 대한 통제력의 심화와 그 결과로 자기통제적 인간(self-controlled individuals)을 생산해 내는 권력의 전략으로 이해한다.<sup>23)</sup> Vold 등도 푸코가 쓴 『감시와 처벌』에서 주로 공개처형제도에서 비공개 행형으로 가는 것이, 기실(其實)은 분명히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음을 다루고 있다. 처형된 자가 무고한 것으로 드러난다 해도, 이는 단지 국가권력이 절대적이며 어느 누구도 국가권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음을 증명할 뿐이라고 본다.<sup>24)</sup> 한인섭도 “만약 감옥을 범죄예방 및 범죄통제의 효율성에 비추어 판단하고자 한다면 감옥의 현상적인 실패는 매우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으로는 감옥의 지속성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감옥의 가치를 범죄의 통제와 제거에 두지 않고, 지배계급의 계급통제전략의 일환으로 위치 지을 경우에는 감옥의 사회적 기능이 보다 분명히 확인되어질 수 있다.”<sup>25)</sup>고 보고 있다. 푸코와 마찬가지로 한인섭도 일반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형벌사상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 일컬어지고 있는 체형으로부터 구금형으로의 변화가 생겨난 것은, 다시 말해 신체적 고통을 공개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주권자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처벌방식으로부터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된 폐쇄된 공간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훈련을 통해 인간의 정신을 개선하려는 처벌방식으로의 변화는 국가주의와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사회변동과 같은 맥락

23) Duff, Anthony and David Garland(1994) *A reader on Punishment*. Oxford University Press, p 33.(윤옥경, 「형벌의 사회적 맥락: 형벌사회학적 접근」, 한국교정학회, 『교정학연구』(제30호, 2006), 70-71쪽에서 재인용.)

24) Vold등, 우범형사정책연구회(역), 『범죄학이론』(길안사, 2000), 260-261쪽. 일부내용 발췌.

25)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박영사, 2006), 267쪽.

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up>26)</sup> Sheingold는 정치 권력자들이 엄벌주의 형사정책과 형벌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범죄문제와 형사정책 그 자체를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분노를 길거리 범죄(street crimes)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를 무마하고 여론의 관심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데” 범죄와 형사정책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Chiricos도 근래 미국사회에서의 약물과 폭력 범죄자에 대한 미디어 이미지는 이데올로기적인 대치(ideological displacement)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실업 문제, 공교육의 실패, 양극화의 심화등 약물중독과 폭력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그 대신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집단을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위협의 원천으로 표현한다. 미디어의 묘사는 범죄를 양산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간 투자에는 별로 관심을 비치지 않는 정치가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범죄자 개인에 대한 중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창출하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정치적 권력의 속성이 범죄문제를 정권유지의 좋은 대상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점이 이 정치적 설명의 핵심이다.<sup>27)</sup>

앞에서 언급한 하이데거의 표현처럼, 그 근본을 캐기 위해서는 주변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찾아가야 하듯이, 행형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찾아가 질 수도 있다. 본고에서도 옹보나 교화가 아닌, 그 근본적인 것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행형이 추구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몇몇의 학자들은 결국, 행형이란 원본이미지의 목적은 국가기관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 반대급부라고 보았다. 그 집행이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 그 중요도만큼 행형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교정의 의미는 국가형벌권의 집행이 그 본질일 수 있다.

하지만 이상의 설명은 행형에 대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에서 유용한 부분일 수 있다. 정치, 경제적인 요인 속에서 행형을 바라보았을 경우

26) 위의 책, 265쪽.

27) 윤옥경, 「형벌의 사회적 맥락 : 형벌사회학적 접근」, 한국교정학회, 『교정학연구』, (제30호, 2006), 76쪽에서 재인용.

에는 위의 설명이 타당할 수 있어도, 행형내부의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원본 교정의 이미지와 현실의 교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원 교정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교정의 목적이 ‘국가권력 집행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이 원본이미지는 아닐 수 있으며, 파생실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시물라시옹 과정 중에 한 단계일 수도 있다. 오히려 본고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교정의 목적이 단순히 교화와 응보의 2가지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현실의 교정이 시물라시옹화된 가상세계라 하더라도, 이미 우리 자신들에게 현실로 인식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현실인 것이다. 교정이 응보와 교화의 일치할 수 없는 개념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단, 좀 더 나은 장래(將來)<sup>28)</sup>의 교정을 위하여, 인식의 차원을 달리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현실의 장에서 비춰진 교정의 모습(교화와 응보의 개념인 교정)에서 양자를 결합하는 것으로써, 2가지 관점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둘 사이의 중간점을 찾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로 나뉘지기 이전의 교정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행형 요소들의 선형적인 절충이 아닌(사유 방법의 변화), 다른 차원의 해결책(사유장소의 변환)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28) 여기에서는 미래(未來)가 아닌, 장래(將來)라는 용어를 썼다. 이는 하이데거의 시간관에 의거한 틀을 활용한 것이다. 하이데거는 시간과 시간성을 구별한다. 그에게서 시간은 통속적인 시간(vulgare Zeit)으로써, 연속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간성(Zeitlichkeit)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존재자에 몰입해 있음으로서(현전화) 자기를 앞질러(도래) 이미 세계 내에 있는(기존) 시간”인 것이다. 통속적인 시간에서는 과거(過去)→현재(現在)→미래(未來)가 순차적이지만, 하이데거의 시간에서는 미래 과거 현재가 공시적이다. 특히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 미래는 도래(到來, zukommen) 또는 장래(將來)로, 과거는 기존(既存, Gewesen)으로, 현재는 현전화(現前化, Gegenwärtigen)로 이해될 수 있다. 미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라면, 도래(到來)나 장래(將來)란 이미 존재하는 미래에 대한 도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가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 변화가 불가능한 개념이라면, 기존(既存)이란 이미 있어왔었던 것이고 미래의 변화를 통해 과거의 변화도 가능해서 이것이 현재에도 변화를 주고, 또 다시 미래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개념이다. 현재란 ‘지금 바로’란 개념임에 반해, 현전화(現前化)란 도래와 기존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시간상의 바로 지금이 아니다. 즉, 하이데거의 사유에서는 현재란 곧 지금(now)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사유에서 시간의 속성이란 장래, 기존, 현전의 상호 허용에, 즉 이러한 세 차원의 통일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형효의 『하이데거와 화업의 사유』 및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을 참조.

### 3. 행형의 시물라시옹과 의미의 변용

앞에서 언급한 파생실재나 시물라크르의 자전은 그 자체로 시물라크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양적인 변화의 시물라크르끼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의 시물라크르끼리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전혀 다르게 보이는 시물라크르끼리의 변용을 통해서 또 다른 시물라크르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곧 하나의 시물라크르인 행형이 변형된 시물라크르로서의 행형에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차원의 시물라크르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크로마키기법이나 폴라주기법은 이러한 시물라크르 변용의 한 전형(全型)이다. TV에서 일기예보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상캐스터는 크로마키(Chroma-key) 합성법을 활용한다. 기상캐스터가 직접 지도위에서 움직이는 구름과 해를 보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캐스터는 블루스크린에 설명하고, 별도의 지도와 결합되어 일기예보가 구성된다. 하나의 시물라크르인 기상캐스터의 말 자체는 완전한 작업이 아니다. 완전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시물라크르가 결합되어서 새로운 시물라크르가 형성된다. 시청자는 이 새로운 시물라크르를 통해 일기예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상관된 2개의 시물라크르가 합쳐져 의도된 시물라크르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음악이나 미술 분야의 하나인 폴라주(Collage)기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폴라주는 기존의 작품이나 다른 재료들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활용, 재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게 된다. 미술 분야의 경우, 단순히 빈 종이에 다른 작품들을 채워넣기도 하고, 그 위에 입체적으로 덧씌우기도 하면서 다양한 이미지가 연출된다. 기존의 모형 또는 이미지와 연속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작은 다른 작품으로 탄생하여 기존의 재료들과 연속성을 갖게 된다. 즉, 재료(또는 작품)은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활용된 후에 오히려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 작품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행형에 대한 양가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행형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서로 간에 간섭과 회통을 통하여 부정적으로 비취질 수도 있고, 합리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도 있다. 즉, 행형에 대한 올바르게 못한 이해라면 이러한 인식이 더욱 왜곡될 수 있는 반면에, 행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 행형전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들 속에서 현실의 교정행정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예시로 『월간 인권』에서 나온 내용에서 “개개의 교도관이나 교정 기관에만 요구할 사항이 아닌 것이 많다. 대부분이 법령 또는 제도의 불비에서 기인하는 침해가 많다. 교정에서도 능동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나, 인권연대의 운동전개 방식인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방법은 되고, 이런 방법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구분을 해 두지는 않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각종 학술 행사나 강의 등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편지를 쓰거나, 성명을 내기도 합니다. 또 직접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하거나, 인권침해기관이나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인권연대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많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처럼, 이런 다양한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것 또한 시뮬라시옹 과정이면서, 시뮬라크르가 다른 시뮬라크르에게 영향 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형의 정확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잘못되거나 과장·과소된 시뮬라시옹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sup>29)</sup>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의 기능뿐만 아니라 올바른<sup>30)</sup> 교정행정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현실의 모습

29) 형행 관련해서도 일반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형벌증가추세가 일반인에게는 별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형기관도 해명기사나 홍보기사 등에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김한균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형벌의 증가추세는 형사체제가 너무 관대하다는 대중의 일반적 인식을 바꾸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형사체제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더 나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한 국가도 형사체제에 대한 시민여론에 관한 더 충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한균,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특별법과 양형정책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사범재범방지 대책 세미나」, 2008, 117-118쪽).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기관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온 기사들에 대해 해명 기사를 신기도 하였다. 중앙일보(2007. 3.31.) 다음 기사를 참조.“국가정보원은 3월 27일자 1면의 ‘정부 부처 주도권 싸움에 발목 잡힌 미래 성장산업’ 기사와 관련, “국정원의 ‘차세대 먹거리 7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방안’ 보고서는 미래 유망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기사가 부처 간 행정력 낭비에 초점을 맞추는 등 일부 내용만 부각해 결과적으로 보고서 취지를 훼손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30) 여기에서 언급한 ‘올바른’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의 뜻으로 사용했다.

속에서 행형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추(反芻)할 점은 무엇인지 기술할 것이다.

### Ⅲ. 행형인식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교정시설은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시대의 조류와 함께 계속 변화하며, 형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변화한다. 교정시설 자체도 여러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기원’과 ‘현재’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현대 행형에서 교도소의 의미가 어떻게 해명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현대의 자료를 놓고 더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sup>31)</sup> 특히 교정시설이 사회관계속에서 권력유지를 위해 유지되든지 또는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움직이더라도, 현재의 교정시설은 응보와 교화라는 모순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에 행형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차에 의하여 행형이 각자 다르게 인식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행형이 어떻게 일반사회에서 비춰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유(a thinking)가 필요한지 기술하도록 한다.

#### 1. 현실에서 행형에 대한 초점 불일치

##### 가. 행형시설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sup>32)</sup>

다음의 글은 이 사회에서의 비주류에 속하는 아웃사이더들의 말속에서 잠시 스쳐가는 행형시설에 대한 언급이다. 여기에서는 교도소나 감옥은

31) 한인섭, 앞의 책, 271쪽.

32) 본고에서 살펴보는 매체는 크게 책, 신문, 뉴스, 영화 그리고 각종 인터넷사이트이다. 이 매체들 속에서 인용된 글들은 필자의 논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발췌한 것이기에, 필자의 논조와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기사들도 많이 있음을 미리 지적해 둔다. 다만 필자가 임의로 발췌한 내용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필자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교정(矯正)이란 의미가 다양한 견해 속에서 존재하는 용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상 언급되는 것은 ‘감옥(監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일 뿐이다.

병역거부를 1년여 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번뇌들이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바꾸며 괴로워했다. 병역거부를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등으로 규정지으며 피하려고 했었다. 낮에 잠을 자다 꿈에서 겠 것처럼 현실인지 아니면 아직도 꿈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불안한 미래, 내가 병역거부를 선택하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며,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두려웠다. 또한 누군가에게 병역거부자임을 밝히거나 병역거부 이유를 물을 때 느껴야만 하는 편견의 벽들이 더욱더 나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 지난 4월 22일 나는 어떠한 이유로도 ‘충을 들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입영 장소로 향했다. 부대 입구에서 운동장이 가까워지고 수많은 입영자들과 그들의 친구, 가족들 속에 섞여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어떻게 집총 거부의를 표현해야 할지 두렵지도 않았다. 과거 가졌던 감옥이라는 편견이 그리 두렵지만은 않았다.<sup>33)</sup>

안녕하세요. 저는 김00라고 합니다. 마흔 한살이구 교도소에서 21년 6개월 살다가 출소한 지 한 달 쯤 됐네요. ... 예? 감옥에서의, 아, 예, 감옥이 범죄를 막는 게 아니라 왜 다시 범죄를 하게 만드느냐는, 그런 거 말씀이시군요. 글썄요. 제일 큰 건 주거 문제 같아요.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제가 오늘 8만원 벌었는데 집이 없으면 여관비 내고, 요새 여관비 3만원, 5만원 한다고 하던데 여관비 내고 밥 먹으면 없어요. 물론 일자리는 많죠. 저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자리도 있고 살아가기 좋은 곳이라는 걸 느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몸을 둘 곳이 없으면 다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가족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처음에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도 도와주는 가족이 없는데, 당장 나오면 개들이 어디

33) 아웃사이드 편집부, 『아웃사이드의 말』 (영진닷컴, 2004), 121-122쪽. ‘내가 선택한 병역거부’라는 제목으로 김도형이 쓴 글의 일부를 발췌했음.

로 가겠어요. 그 사람들 나와서 찾아갈 데라고는 옛날 같이 범죄 했던 친구들이나 술집이에요.<sup>34)</sup>

첫 번째 문단은 병역거부를 한 어느 청년의 이야기이다. 그의 고민 중 초반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그의 선택에 따라 그는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될 것이고, 이는 곧 감옥(그의 표현대로)에 가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문단은 어느 출소자의 고백내용이다. 출소 후 범죄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가정과 사회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는 범죄의 재생산 매개체가 바로 교도소라고 지적한다.

인권단체들도 역시 행형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하다.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의 모습은 교화와는 거리가 있는 감시와 처벌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인권실천 시민연대(이하 인권연대)에서는 창립이유에 대해 “직접 인권현장을 뛰면서, 인권피해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권단체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감옥, 군대 등에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람들, 특히 목숨을 잃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인권단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새로운 인권단체를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고 구성”되었다. 또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는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수많은 청년·학생, 노동자, 민주인사들이 구금되어 있었고, 안기부 등 수사기관, 교도소에서 고문 등 인권유린이 심각했기에 이러한 인권침해와 맞서 싸우고 양심수들을 구조하기 위해 그 가족들이 만든 모임”이다. 이러한 인권단체에서 바라보는 행형시설이란 다음의 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폐쇄적인 공간중의 하나가 교도소입니다. 흔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일컬어지는 교도소는 실정법을 위반한 이들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 구금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서울구치소 등 전국 42곳에 이르는 교도소 운영은 교화를 통한 사회적응 훈련과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근본취지와 달리 재소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심심찮게 전해져 오는 제보나 호소에 의하면 교도소 내에서 여전히 가혹행위 등 각종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재소자들의 고통은 가

34) 위의 책, 164-165쪽. ‘범죄의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김00이 쓴 글의 일부를 발췌했음.

중되고 있습니다.<sup>35)</sup>

많은 분들이 ‘감옥’이란 표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시지만, 자신들의 권리에 관련한 법률 하나, 처우에 관련한 규칙 하나, 구금증에 대한 자료 하나 제때 자신의 손으로 구해볼 수 없고,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상황들은 아직도 우리의 구금시설이 ‘감옥’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자료를 하나하나 엮어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봄,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엮어낸 이후 채 1년도 되지 못해 다시 한 번 자료를 추리고 약간의 자료를 덧붙여 증보판을 엮어냅니다. 미흡한 자료지만 수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는데 이 자료집이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소박하지만 힘겹게 바라봅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의 감옥인권팀은 수인분들이 구금시설 내에서도 권리와 인권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고 가공하고 묶어 낼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sup>36)</sup>

이러한 인권단체들에서 바라보는 행형시설은 교도소가 아닌 감옥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sup>37)</sup> 행형시설이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침해가 만연한 곳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왜 교도소(矯導所)라고 하지 않고

35) 이승호·박찬운 외 지음, 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엮음, 『한국 감옥의 현실 - 감옥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사람생각, 1998), 5쪽. 머리말인 “감옥을 바꿉시다!”에서 발췌.

36) 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http://www.sarangbang.or.kr>, 06. 7. 12. 참조),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간되는 감옥관련자료집(감옥판례자료집, 감옥훈령예규집, 감옥법령예규집)중에서 「감옥판례자료집」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37)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의해서도 교정시설은 교화의 장소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독촉장이나 기타 정수금 고지서, 또는 각종 서신에서도 “△△교도소 수감번호 1354 홍길동”등으로 표시한다. 사회 여러 기관들의 용어에서도 교도소나 수용자에 대한 인식은 감옥이나 수인을 연상하는 용어들이 사용된다. 비단 수용자 뿐만이 아니라 교도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는 보안서비스종사자(Protective Service Workers)중에서 경찰 소방관과 같은 항목에 교도관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영문표기에서는 행형시설은 ‘Prison’이다. 현재 교도소를 Corretional Institution이라고 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http://www.tl21.com/bbs/zboard.php?id=pds&page=1&sn1=&divpage=1&sn=on&ss=off&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6\(07. 10. 31\)](http://www.tl21.com/bbs/zboard.php?id=pds&page=1&sn1=&divpage=1&sn=on&ss=off&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6(07. 10. 31)) 참조.

감옥(監獄)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위와 같은 맥락에서의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할 부분이다.

#### 나. 행형 목적에 대한 동의(同意), 그러나 현실에 대한 이견(異見)

누가 뭐래도 행형의 당사자는 교도관과 재소자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 교도관과 재소자는 얼핏 보기와는 달리 단순한 지배복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인식해야 맞을 것이다. 사실상 무장하지도 않았으며, 재소자에 비해 숫자도 월등히 적고 재소자에 비해 잃을 것은 훨씬 더 많은 교도관은 재소자로부터 협조적 행위를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그리 많지 않다. 교도관은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사고없는 재소자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소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재소자는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교도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재소자와 교도관은 각자의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sup>38)</sup> 물론 행형목적에 대해서는 수용자나 교도관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가족, 관련 인권단체 모두 행형의 방향이 응보적이기보다는 교화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그 현실의 행형이 교화적인지 응보적인지의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교도관과 수용자의 입장은 그 기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다음의 신문기사는 이러한 양상의 극단을 보여준다.

수용자의 기고에서는 현재 교정행정이 교도관의 독단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용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없다는 기사인 반면에, 교정직원의 기고에서는 수용자의 인권강화에 따른 교도관의 피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행형이라는 분야가 다양하고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만, 그 본질에는 수용자와 교정직원이 있다. 그런데도 양 입장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 아니, 다르다 못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38) 이윤호, 앞의 책, 13-14쪽.

수용자 기고<sup>39)</sup>

교도소의 폐쇄적인 특성상 사회적 감시 체계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지휘감독 라인을 장악함으로써 자체의 감독 기능마저 약화하고 교정행정의 난맥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도소가 수용자들을 격리수용하는 형무기능만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이들을 교정교화하고 준법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정행정의 궁극적 지향점일 것이다. ...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는 고사하고 수용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것이 작금의 교도소 실상이다. ... 재소자들이 일부 교도관들의 탈법행위로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해 해도 이를 호소하고 도움을 청할 마땅한 통로가 없는 것도 무슨 일이든 축소·은폐·조작을 통해 해결하려는 그릇된 관행을 제어하지 못하는 요인이다. 장관에 대한 청원권이 있지만 그 내용은 재소자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지방 교정청에서 청원조사를 함으로써 실효성이 거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도 한계가 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방법이 있지만 교도관의 명백한 범죄행위까지도 무혐의 처리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교도관들의 준법의식 해이를 부추기고 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자기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는 비난을 초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 재소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 얼마나 야만스러운 일인가

교정직원 기고<sup>40)</sup>

요즘 교도소에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범법자가, 인권을 앞세워 온갖 요구를 해대며 ‘큰소리치는’ 것이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인 양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각종 요구사항이나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칫무태만이니 ‘직무유기’니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 검찰, 청와대 쪽에 고소 고발·진정을 한다고 소리치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이런저런 진상조사니 뭐니 하며 들들 볶인다. 요즘 교도소에선 교도관에 대한 폭언 폭행도 매우 흔한 일이다. 시도 때도 없이 소란과 행패를 부릴 경우 교도관들은 속수무책이다. ... 교도소가 이처럼 변했지만 일반국민들은 아직도 ‘교도소’ 하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이고 각종 가혹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어두컴컴한 방과 쇠창살 주먹밥과 콩밥을 연상한다. 교도관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수용자를 마구 다루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변한 것처럼 교도소 내 사정도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시집살이 시키는 식으로 변했다. ... 교도소 생활은 지긋지긋하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잠시라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수용생활을 한 번 경험한 뒤엔 교도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39) 한겨레신문(2006. 4. 18.), 독자투고,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533.html>) 참고. 사실 이 기사에서 일부분만 발췌하는 것도 필자의 주관이 들어가게 되

조금만 사려깊게 생각한다면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일면(一面) 모두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이면(裏面)에는 서로 틀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만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가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두 가지 팩트(fact)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행형에 대한 시각차이도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차이가 행형의 풍부함과 유연함, 다양성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41)</sup>

## 2. 갈등관계의 해소방안 모색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행형을 바라보는 차이 또는 갈등 관계에 대해, 어떤 해소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크게 3가지 관점으로 살펴해보도록 한다. 첫째는 양자긍정과 양자부정의 동거(또는 이중성, duplicity)로써 행형목적과 행형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중성(二重性)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중성은 이원성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인데, 이원성(dualism)이 2가지의 개념이 중첩될 수 없는 평행선을 긋는 개념이라면, 이중성은 2가지의 개념이 서로 중첩되기도 하면서(同, 不二) 차이가 나는(異, 不一) 관계를 말한다.<sup>42)</sup> 근대적 사유의

기에, 일종의 시물라시옹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아래의 각주 기사도 발췌했기에 마찬가지이다.

40) 조선일보(2006. 1. 19.), 독자편지(<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601/200601180497.html>).

41) 한 예로 차이점은 곧 공통점에 근거해서 다르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곧 두가지 상반된 의견은 공통의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는 차이(差異)에 대해 “달라도, 혹은 싫어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은 차이를 긍정하는 게 아니다. 진정 차이를 긍정하는 자라면, 자신과 다른 것과 만나서 그것을 통해 자신이 달라지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차이를 진정 긍정하는 것이고 차이를 생성으로서 파악하는 것”(한겨레 신문,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에 대한 서평에서 인용)이기 때문이다. 들뢰즈가 차이를 통해 존재에 대한 이해방식을 추구했던 사상가라면, 하이데거는 존재 속에서 차이를 이해했던 사상가이다. 하이데거 역시 차연(差延, Unter-schied)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차연이란 차이(差異)와 연기(延期)의 준말로써, 이 용어 속에서 보이는 차이란 동일성과 공존할 수 없는 반대의미가 아니라, 동일성의 이면에 나타나는 것이 차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진리가 동일성 없는 차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차이 속에 동일성이 있다는 것이다.

42) 이러한 관계는 동·서양 모두에서 근본적인 사유로써 흐르고 있는데, 특히 하이데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이원성(二元性)은 이분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분법은 나누어져서 서로 연결성이 결여되어 서로의 소통이 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긍정/부정의 두 요소 속에서 긍정(肯定)은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정(否定)은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이중성은 긍정 속에 부정이 있고 부정 속에 긍정이 있게 된다. 즉 긍정과 부정이 서로 새끼 꼬기의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sup>43)</sup>

이는 범죄(犯罪)에 관해서도 이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치 범죄가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순기능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형법이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규범을 규정한다는 사상, 즉 범죄는 사회의 필요악이며, 범죄는 역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때로는 순기능도 한다는 사회학자 뒤르켐(Emile Durkehim)에 의해서 일찍이 강조된 바 있다. 즉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면 시민들은 합세하여 성토하고 비난하며 결집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이며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만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어 우리 사회의 시민정신을 성숙되게 해 준다는 것이다.<sup>44)</sup> 그리고 행형목적 역시 이중적으로 바라 볼 수 있다. 행형목적이 응보형에서 교화 쪽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지만,<sup>45)</sup> 그

존재론(Sein)에서 언급하는 분리+만남, 원효의 『金剛三昧經論』에서 자주 쓰는 不一而不同, 노자가 언급하는 玄, 그리고 불가에서의 만(卍, 차이가 나면서도 만나는 모양) 등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관계 속에서 이중적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형효의 『하이데거와 화엄의 사유』(청계, 2002)에서 참조. 특히 Heidegger의 사유는 이러한 이중성의 사유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대표작인 『Sein Und Zeit』나 기타의 논문들 모음인 『BASIC WRITINGS : from BEING AND TIME to the Task of Thinking』에서 이러한 사유가 드러나 있다.

43) 정영희, 「노장사상의 교육생태학적 독법」(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94-95쪽 일부 발췌.

44) Emil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Glencoe, IL : Free Press. 1960. p. 102. (이윤호, 『교정학개론』(박영사, 2002), 4쪽. 재인용)

45) 물론 예외적으로 응보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범죄에 관해서는 응보형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의 아동성폭행사건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인 여론에 의해서 해당 범죄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형벌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부에서 발행한 『성폭력사범 재범방자세미나 자료집』(2008)을 참조하면 이러한 추세를 읽어낼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미국, 일본의 경우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또한 1970년대 미국에서 신용보주의가 대두된 것은, 이런 추세에 대한 역(逆)흐름이라기보다는 교정시설에 대량의 범죄인이 있어 교정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주장된

렇다고 응보의 개념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박양빈이 범죄자 처우에 관해서 “개선 및 사회화라는 것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수형자 자신의 속죄와 이를 통한 개선이 전제되는 것이 필요하다.”<sup>46)</sup>고 하였는데, 이 말 속에는 응보는 단순히 응보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보 속에 이미 교화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교화를 한다는 것 속에는 응보가 전제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즉, 응보 없는 교화는 존재할 수 없으며, 교화가 없는 응보의 개념도 폐기되어버린 구시대적인 개념이다.<sup>47)</sup> 이는 양자 긍정과 양자 부정이 공존(共存)할 수밖에 없는 개념으로 행형의 목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행형목적을 명사적(名詞的) 개념이 아니라 동사적(動詞的)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관점과도 연결되는데, 행형목적에 대해 규정적이고 고정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사적 개념의 행형은 여러 요소가 연계(interconnected)되기에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좁게는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에서부터 고찰될 수 있다. 당연하겠지만 병원이나 학교에서 그 중심에는 환자나 학생이 있겠지만, 이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맞은편에 있는 의사나 의료시스템, 교사와 학사운영제도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행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구조(the structure of the total institution) 역시 수용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기관의 실무자(staff)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수용자의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교도관의 삶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도관의 공식적인 삶뿐만 아니라 비공식적(非公式的) 형태도 고려해 넣어야 하는 것까지 나아간다.<sup>48)</sup>

이러한 동사적 개념의 행형은 넓게는 형사사법 전반의 ‘연계성 속에서 행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형벌목적의 추구는 형벌 예고단계에서 시작하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형사정책, 동경법학연구회, 井上法律總合研究所 編, 1986, 59-61쪽; 박양빈 「범죄자처우이념 - 그 논쟁과 방향-」, 『교정연구』(제13집, 2001), 103쪽. 재인용.)

46) 박양빈, 위의 논문, 104쪽.

47) Orlan Lee, & T. A. Robertson(1973), *'Moral Order' and The Criminal Law*, The Hague: Martinus Nijhoff, pp. 117-118.

48) Howard C. Daudistel, *Criminal justice: situations and decisi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pp. 304-305.

여 형(刑) 선고단계를 거쳐 형(刑) 집행의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된다. 만약에 응보와 일반예방의 목적이 행형의 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할 목적이라고 본다면 재사회화 행형목적은 그만큼 재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행형에서 취해지는 기본권제한조치의 허용폭을 그만큼 넓혀 줄 수 있게 된다.<sup>49)</sup> 이를 다시 설명하면, 행형목적은 행형시설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체계 전반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행형의 단계는 사법절차상 마지막 과정에 속하는 것이지만, 앞의 전(前) 단계들(검찰기소, 법원심판 등)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꾸로 행형단계에서의 결정 여하에 따라 가석방자의 관리나 중누범문제 등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sup>50)</sup> Clear 와 Cole도 역시 "교정은 복잡적이고 때로는 갈등적이기도 한 목표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며, 교정은 전문가와 때로는 갈등적이기도 한 목표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며, 교정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고, 교정은 하부기관 간 상호영향을 미치는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sup>51)</sup> 보고 있다. 이처럼 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구체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연관되며 움직이는 동사적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지, 고정된 명사적 개념으로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본의(本意)를 잃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다 나은 장래(將來)를 위해 지금의 교정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정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목표추구는 교정행정 스스로가 자신을 결박하고 결박당하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행형법에서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교정국에서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것"<sup>52)</sup>을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행형법

49) 이호중,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행형과 수용자의 인권」, 『형사법 연구』(제22호, 2004), 353-354쪽.

50) 이윤호, 앞의 책, 14-15쪽.

51) 위의 책, 10쪽.

과 교정국에서 밝히는 그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수용자를 격리하여 특별예방에도 기여하면서,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범죄의 처벌을 통한 일반 예방적 효과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행형법 등에서 그 목적으로 기술한 “격리와 사회복귀”는 그 자체로 이미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을 시인해야 한다. 출소자가 재범하게 되는 주요원인을 잘못된 교정 때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하는 주장이나<sup>53)</sup>, 재범이나 누범의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의 실패에서만 구할 수는 없지만 그 일차적인 책임이 교정활동 자체에 있다고 보는 시각<sup>54)</sup>은 현실의 교정여건을 감안할 때, 너무 광대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허주옥은 자유형의 형기가 그 범죄자에 대한 교정효과를 달성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고도 충분한 기간으로서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상 불가피한 제약으로 인하여 수형자의 개선 및 재사회화를 교한 교정처우 시행에 필요한 시설 인원 등이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심신상태가 정상이고 개선이 가능한 수형자들까지도 사회와 격리하여 처우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재사회화를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sup>55)</sup> 행형시설에서 실시하는 작업이 실제로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냉철한 비판도 필요하다. 행형법에서는 기술교육을 통한 사회복귀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때 작업은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어서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의 시설에서의 교정은 그 전개가 이념의 구현에까지는 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즉 교정의 성과(成果) 및 과정(過程)속에는 어쩔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 등에서 행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작금의 교정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춰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제점을 모두 교정당국이 떠안고 있기 보다는 현실에서 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교정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52) 교정국 사이트 참조 (<http://www.corrections.go.kr>).

53) 허주옥, 앞의 책, 9쪽.

5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2004년판-』(우리인쇄사, 2003), 399쪽.

55) 허주옥, 앞의 책, 9-10쪽.

것을 행형법이나 기타 규정 등에 목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 행정지표가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면, 교정조직은 행형법에 규정된 사항의 실천(實踐) 및 이행(移行)의 확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형법」이 수용과 계호, 접견과 서신, 급여, 위생과 의료, 교육과 교화, 작업, 영치, 분류와 처우, 가석방 및 석방, 사형의 집행 및 사망과 관련된 규정이 주(主) 내용이라면, 행형법의 목적은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확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도 볼 수 있다.

#### IV. 결 론

행형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실제 행형을 집행하는 교정직원이 생각하는 행형의 모습이 있고, 수용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형이 있고, 그 수용자들의 가족들의 관점이 있고, 인권단체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있다. 각각의 스펙트럼에 따라 교정시설(또는 감옥)은 비슷하게도 또는 상이하게도 비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단지 갈등과 반목만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sup>56)</sup>

이러한 다양한 행형의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이론을 활용하였다. 시뮬라시옹이 다양한 변이를 양산해 내고, 또 그 본질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사물의 본질의 의의가 오히려 시뮬라시옹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뮬라시옹이 단선적으로 1열→2열→3열로 가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3열에서 2열로 1열로 가서 본질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뮬라시옹의 변화처럼

56) 성폭력사범에 대한 개선가능성에 관련해서도 그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든, 모두 성폭력사범의 개선가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쪽에서 바라보면 재사회화프로그램의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재사회화프로그램의 재성찰의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교정프로그램은 인간본성의 뿌리에는 뽑아낼 수 없는 죄악의 본질과 함께 개선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이성적 믿음과 이에 대해 재사회화에 사회적 자원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는 규범적 의지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지, 경험적 조사결과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김한균, 앞의 논문, 120쪽.)

행형의 이미지도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행형목적의 완전한 달성을 위한 방향제시의 글이 아니라, 목적 실현의 선결과제로써 다양한 행형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摸索)이다. 즉, 본고에서는 행형이 교화와 응보라는 일치되지 않는 개념의 집합일 때, 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거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미시적 접근을 통해 행형목적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실의 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행형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행형목적에 대한 이중성의 인식, 동사적 개념으로의 전환,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들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으로 행형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의 적확(的確)한 이해를 선행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정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너무 높은 이상을 잡는 것은 불협화음을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乖離)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진지한 자기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단행본]

- 고사카 슈헤이, 김석민 옮김, (1998), 『현대철학과 굴뚝청소』, 새길.  
 김용준 · 이순길, (1995), 『교정학』, 고시원.  
 김형효, (1989)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 (2002), 『하이데거와 화엄의 사유』, 청계.  
 ———, (2000),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 청계.  
 김화수등, (2007), 『한국교정학』, 한국교정학회.  
 마샬 맥루한, 김균 · 정연교 옮김, (2006), 『맥루헌을 읽는다』, 궁리출판.  
 마샬 맥루한 · 팽탱 피오르, 김진홍 옮김, (1988), 미디어는 맛사지다』, 로알프로세스.  
 미셸 푸코, 오생근(역), (2000),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 나남출판.  
 배영달, (2005), 『보드라야르와 시콜라시옹』, 살림.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4년판.

- 아웃사이더 편집부, (2004), 『아웃사이더의 딸』, 영진닷컴.
- 앙리 베르그손, 황수영 옮김, (2005), 『창조적 진화』, 아카넷.
- 이승호·박찬운외 지음, (1998), 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엮음, 『한국 감옥의 현실 - 감옥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사람생각.
- 이윤호, (2005), 『교정학개론』, 박영사.
- 장보드리야르 지음, 이상률 옮김, (2004),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 장보드리야르, 하태환 옮김, (2005), 『시뮬라시옹』, 민음사.
- 정영석·신양균, (1996), 『형사정책』, 법문사.
- 최정기, (2006), 『감금의 정치』, 책세상.
- 콜린 고든 (편), 홍성민 옮김, (1997), 『권력과 지식 - 미셸 푸코와의 대담』, 나남출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성폭력사범재범방지 대책 세미나 자료집』
- 한인섭, (2006), 『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 허주옥, (2002), 『신판 교정학』, 법문사.
- Vold 등, 우범형사정책연구회 옮김, (2000), 『범죄학이론』, 길안사.
- Lee, Orlan, & Robertson. T. A. (1973). *'Moral Order' and The Criminal Law*, The Hague : Martinus Nijhoff Press.
- Daudistel, Howard C. (1979). *Criminal justice: situations and decisi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rss.
- Heidegger, Martin. Translated by Jonn Macquarrie and Edward Robinson. (1962). *BEING AND TIME*, Harper and Row.
- Heidegger, Martin. Trans. Edgar Lohner, *Letter on Humanism, PHENOMENOLOGY AND EXISTENTIALISM*,
- Heidegger, Martin. Edited by Krell, David Farrel. (1976). *BASIC WRITINGS : from BEING AND TIME(1927) to the Task of Thinking (1964)*, Harper & Row.

[논문]

- 강영철, (2001), 「형벌·행형의 목적과 단기자유형」,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13호.
- 김영기, (1996), 「장 보드리야르의 포스트모더니즘 - 매스미디어론을 중심으로」

- 으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사회과학연구』, 제7권.
- 박양빈, (2001), 「범죄자처우이론-그 논쟁과 방향-」,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13호.
- \_\_\_\_\_, (2001), 「범죄자처우이론 -그 논쟁과 방향- 」, 『교정연구』, 제13집.
- 백승영, (2003), 「수수끼끼와 실제: 보드리야르의 경우」, 한국해석학회, 『낭만주의 해석학』, 해석학연구, 제12집.
- 양화식, (1999), 「양형 및 행형에서의 형벌목적」,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1호.
- 윤선희, (1997), 「포스트모던 영상미학의 아우라와 시뮬라시옹-포스트모던 세대 수용자의 〈비트〉 읽기」,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통권제42-2호.
- 윤옥경, (2006), 「형벌의 사회적 맥락 : 형벌사회학적 접근」, 한국교정학회, 『교정학연구』, 제30호.
- 이호중, (2004),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행형과 수용자의 인권」,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 연구』, 제 22호.
- 정영희, (2007), 「노장사상의 교육생태학적 독법」,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길, (2001), 「포스트모던적 재현에 관한 보드리야르 시뮬레이션 이론」,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제21호.
- 한창완, (1998), 「저패니메이션의 시뮬라시옹에 대한 이데올로기 기능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통권 제2호.

[기타 자료 및 인터넷 자료 - 검색일은 각주 참조]

교정국 <http://www.corrections.go.kr>.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http://minkahyup.org>.

법무연수원 <http://www.lrti.go.kr>

인권연대 <http://www.hrights.or.kr>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Penological Purpose Considered  
Through the Concept of Correction and Retribution

Jung, Woo-Se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how penology, which includes two incompatible elements "correction or resocialization" and "retribution," should be understood and interpre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seemingly dualistic objectives as duplicity in a higher dimension, I consider different viewpoints of penology in actuality and suggest several solutions to discord that comes from the difference. As tools for discussion, I used Baudrillard's simulation theory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understand penology in actuality, and employed M. Heidegger's thinking of The Being to derive the solutions.

This paper consists of four chapters. Chapter I provides the problem discussed in the paper and a foundation for its solutions. In Chapter II, using Baudrillard's simulation theory, I describe that correction or retribution itself can be a simulacre, and that control by power can lie behind them. In other words, it is shown that the process of simulation conceals the original of the simulacre, that is, the deep image that is not seen. The above explanation, however, is useful only for approach to penology from the theoretical view, so penology in actuality is discussed in the next chapter. In chapter III, I examine through specific examples how the objectives of penology discord in the field of actuality, and suggest a solution to that disagreement. Instead of taking a linear compromise by adopting one of the two objectives or by searching a middle point between them (to change the way of thinking), a new approach to the problem in a

---

\*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Division Officer, Seong Dong Detention Center, Ph.D. Candidate,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different dimension (a turning the site of thinking) is suggested as the solution. That approach includes three points : Understanding of the duplicity of the purpose of penology, conversion to the verbal concept and cognition of the limit in actuality. Finally, Chapter IV summarized the paper.

This paper especially emphasizes that understanding of the accurate meaning of actuality should come first for improvement of penology, because setting an ideal without the exact recognition of the current state only leads to a dissonance. In order to resolve the estrangement between the actuality and the ideal, a more serious self-examination is needed and should be continued.

주제어 : 시뮬라시옹, 행형목적, 교화 또는 재사회화, 응보

Keywords : Simulation, Penology Objective, Correction or Resocialization, Retribution

투고일 2008.5.9. / 심사일 2008.5.27 / 게재확정일자 2008.6.16.(월)